

여성노인, 생명릴레이로서의 광기(狂氣)*

- 『노파의 미소』 (오바 미나코)와
『소묘』 (박완서)를 중심으로-

明惠英**

(e-mail: m1h00y9@hanmail.net)

目次

1. 들어가며
 2. 제3의 성, <노파>
 3. 자아의 조작과 분열
 - 3.1 독심술의 말로
 - 3.2 정보 강박증
 4. 생명릴레이로서의 광기
 5. 나오며
-

1. 들어가며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문학과 사상의 큰 테마 중 하나가 광기(狂氣)였다. 이성과 과학이 문명의 중심이 되고 그에 따라 사회제도가 재편되어, 예술, 문화가 융성한 19세기라는 시대로부터 빠져나온 것으로써 광기가 문학의 테마가 될 필연성이 있었다. 문학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분열 - 참 존재와 강요된 존재 사이의 분열 - 을 광기의 인물들을 통해 표출한다.¹⁾ 그리고 그것은 남성적인 상징질서 속에서 부재와 비존재로 존재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5406).

** 전주대학교 강사, 한일근현대비교문학.

1) 임옥희 외(1994)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p.70.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이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 여성 존재의 부재성과 비 존재성을 극복하기 위한 - 글쓰기의 전략이기도 하다.²⁾ 또한 여성 인물의 광기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억눌린 자아를 표출하고자 했던 여성들의 몸부림이다.³⁾

일본과 한국의 1960, 70년대는 오로지 경제성장에 주목했던 시기였다. 직장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가장들의 배후에는 재생산을 뒷받침해 온 주부들이 있었다. 가정에 남겨져 국가의 지상 명령인 앳홈(at home)을 창조하며 가사노동에 주력한 주부들의 삶은, 폐쇄된 공간과 가사노동의 반복 속에서 오는 피로감을 이기지 못하고 점차 빼격거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남편들과의 소통부재로 인해 야기되는 주부들의 방황, 우울증, 신경증, 강박관념 등의 광기의 자기사(自己史)가 문학의 소재로 부상하였다.

소설 속에서 전업주부의 일상을 디테일하게 묘사해 화제가 된, 동 시대를 풍미한 한일 여성작가로 오바 미나코(大庭みな子)와 박완서가 있다. 작품 중에서도 특히 오바 미나코의 『세 마리의 게(三匹の蟹)』(『群像』, 1968.6)⁴⁾와 박완서의 『어떤 나들이』(『월간문학』, 1971.9)⁵⁾는 광기의 초기증상을 보이는 중년의 전업주부의 일상이 주제이다.⁶⁾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른 뒤, 두 소설의 주인공인 중년 여성은 각각 『노파의 미소(山姥の微笑)』(大庭みな子, 『新潮』 1976. 1)⁷⁾와 『소묘』(박완서, 『소설문학』 1983. 3)⁸⁾에서 광기 가득한 노파의 모습으로 재탄생되었다.

오바 미나코는 미즈타(水田)와의 대담에서 여성들의 ‘광기’에 대해 언급하며, “밖으로 표출되는 광기는 개인의 경우나, 사회의 경우 모두 어떤 의미로는 안정장치 같은 것이죠. 표출된 징후에 따라 원인을 추정하거나 치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에 비하면 침묵하는 광기야말로 몇 배 무서운 거죠.”⁹⁾라며 침묵의 시간을 깨고 글쓰기를 통해 광기의 분출구를 찾았던 과거를 회상했다.

『노파의 미소』에는, 강한 감수성을 지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민감하게 캐

2) 우미영(2000) 「여성의 광기와 무의식의 욕망 - 백신애론」 『여성문학연구』 4권, 한국여성문학학회. p.353.

3) 김수현(2006) 「소설 속 여성의 狂氣와 치유의 서사 - 오정희와 최윤 소설을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4) 저본; 大庭みな子(1998) 『女性作家シリーズ』, 角河書店.

5) 저본; 박완서(2006)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문학동네.

6) 명혜영(2011) 「주부의 연극적 자아와 갈등 - 『세 마리의 게(三匹の蟹)』(大庭みな子)와 『어떤 나들이』(박완서)를 중심으로 -」, 『日本文學』53집. pp.261~284.

7) 저본; 大庭みな子(1993) 『女性文學、短編』, おうふう.

8) 저본; 박완서(1999)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3), 문학동네.

9) 大庭みな子·水田宗子(1994) 『<山姥>のいる風景』, 田畑書店. p.45.

치하는, 그로 인해 <타인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을 가진 여성노인이 등장한다. 미즈타 무네코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여성의 침묵하는 내면의 복잡한 구조를 테마로 한 『노파의 미소』는 직접적이고도 솔직한 자아표현을 거부당한 여성의, 굴절된 역설적 마조히스틱(masochistic)한 자기주장이며, 노파의 자타에 대한 자아조작은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한 절망을 알아버린 자의 서바이벌 테크닉이자 자기표현.”¹⁰⁾이라 분석한다.

한편 박완서의 『소묘』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위해 무한한 정보력을 갖추고자 광분하는 여성노인이, 머느리의 눈을 통해 극복의 대상으로 묘사된다. 서영채는 박완서 문학을 “사람다운 삶에 대한 갈망”으로 규정하며, 『소묘』는 “부잣집 마나님의 위선을 고발”¹¹⁾한 작품이라 평가하였다.

두 소설은, 발표 년대나 당시 작가들의 연령이 유사하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여성의 만년의 모습을 <광기>를 모티브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교분석할 가치가 있다.

본고에서는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초반에 발표된 오바 미나코의 『노파의 미소』(1976. 1)와 박완서의 『소묘』(1983. 3)에 묘사되는 여성노인의 광기에 초점을 맞춰, 노파들의 광기가 생명을 창조해내는 힘으로 ‘승화’, ‘표출’되어가는 과정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2. 제3의 성, <노파>

『세 마리의 게(三匹の蟹)』와 『어떤 나들이』에서는, 주부들의 생명력 불연소와 자연스럽지 못한 삶의 방식들에 대한 문제제기로써 모든 부조리한 것들의 메타포인 ‘뒤틀린 형상’을 창출해내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른 뒤의 그녀(주부)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되었을까? 두 작가의 작품 『노파의 미소』(1976)와 『소묘』(1983)에서는 노경(老境)을 맞이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우선, 위선자들의 모임이라 생각하는 브리지파티에서 적극적인 척 줄곧 연기를 해온 탓에 위장병을 얻었던 『세 마리의 게』의 유리가 『노파의 미소』에서는 ‘타인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 노파로 변모해 있다.

주인공 ‘여자’는 철이 들기 시작한 때부터 평상시 어머니가 하는 말투를 복창하다가, 어느새 ‘타인의 마음을 읽는’ 애늬은이가 되어 있다. 그러던 아이가

10) 水田宗子(1991) 『フェミニズムの彼方』, 講談社, p.100

11) 서영채(1999) 「사람다운 삶에 대한 갈망」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 해설, (주)문학동네. p.445.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을 복창하는 행동을 멈추고 점점 말 수가 줄어들어 침묵하는 법을 터득해간다.

“너 학교에 가게 되니까 갑자기 얌전해졌구나.” 하고 어머니가 말하자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 모두 싫은 표정을 지으니까 입 다물고 있기로 했어. 어른들은 애들이 바보처럼 행동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기뻐하는걸 뭘. 이제부터 어른들을 기쁘게 해주기로 했어.” (중략) “생각하고 있는 것을 뭐든 말하렴. 하는 척 같은 것 하지 않아도 돼. 어린애 주제에.”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경멸스런 웃음을 흘렸다.¹²⁾ (『노파의 미소』, p.53)

어린 시절부터 ‘여자’는 “어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을 감추는 자아 조작을 시도한다. 그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어린애 주제에”라는 꾸중을 들어도 반성은커녕 도리어 “경멸스런 웃음”을 흘리며 냉소로 일관한다. 소녀는 사춘기를 맞아 서서히 어머니에 대해 동성으로써의 적개심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딸도 또한 자신이 어머니에게 짐이라는 것을 깨닫자 - 실은 철이 든 다음부터 어머니에게 자신이 짐이라는 것을 신물이 날 정도로 알고 있었다. - 어머니를 하루라도 빨리 해방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 역시 해방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는 반면, 그런 어머니가 까닭 없이 미웠다. (중략) 그러나 그 증오와 노여움의 대상이, 동성의 경쟁자가 된 어머니의 비열한 방법, 즉 엄마라는 권위를 휘두르며 정면대결을 피하는 비열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돌연 딸은 어머니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성숙을 느낀다. (『노파의 미소』, p.53)

‘여자’는 사춘기의 딸이 갖는, 동성인 어머니에 대한 라이벌 의식과 어른들의 권위에 대해 거부감을 노골화한다. 그러나 그녀 역시 “지극히 보통인, 전형적인 남자”와 결혼하여 충실히 아내역할을 소화하기에 이른다.

여자는 남자에 의해 환희를 얻었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슨 일이든 해서 남자의 비위를 맞춰줘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쨌든 남자의 마음 구석구석 여자에게는 손에 잡힌 듯 훤히 보였으므로, 여자에게 그 일은 대단한 중노동이었다. 상대의 마음이 보이지만 앓는다면 피곤하지도 않고 행복하겠는데. (『노파의 미소』, p.54)

12) 필자 번역, 이하 동.

결혼에 의해 어머니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여자’는, “환희의 보상”으로 이번에는 남편의 마음을 읽으며 비위를 맞춘다. 그러나 그런 일은 힘든 “중노동”으로, 그로인한 피로감으로 행복하지 못한 삶이었다고 슬회한다. 마흔이 넘자 ‘여자’는 피로누적으로 일찌감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여자’는 사회로부터 “갱년기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20여 년이 넘게 갱년기장애자로 취급 받는다. 더욱이 평소에 타인이 원하는 음식을 거절하지 못한 탓으로 중증의 “비만”환자로 전락한다. 결국 ‘여자’는 62세의 어느 날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렇듯 계의 등딱지에서 부정형을 읽어내고 자신들의 미래를 예감했던 주부 우리는, 10년이 지난 지금 타인의 의중을 읽어 그들의 욕망을 우선하는, 그로인해 피로에 지친 노인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머느리가 내레이터인 『소묘』의 ‘시어머니’는, 정년을 맞아 사회적 지위를 잃은 남편은 집안에 숨기고, 외부인들에게는 자신의 진심을 숨기는, 위선으로 가득 찬 노파로 묘사된다.

지금도 이백 평 가까운 정원 한 귀퉁이에 그 노송이 서있지만 옮겨 심자마자 죽었는지 잃은 갈색으로 타들어가고 가장귀는 삭정이가 된 노송은 기품은커녕 괴기스러웠다. (『소묘』, p408)

『소묘』의 ‘시어머니’는 “젊은것들 저희끼리 제멋대로 자유롭게”라는 취지 아래, “운치 있고 고풍스러운” 노송을 옮겨 심으면서까지 신접살림을 차릴 아들부부의 거처를 마련해준다. 이는 마치 자신들 노부부의 은거를 시사한듯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제스처일 뿐 속내는 전혀 다르다. 정작 옮겨 심은 후의 노송은 “괴기스러운” 고사목으로 변해있어, 마치 퇴임해 힘을 잃은 ‘시아버지’를 연상케 한다. 정작 ‘시어머니’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지나치리만치 생명력 넘치는 거실의 화분들이다.

모양도 빛깔도 가지각색의 바이올렛은 휴면기도 없이 사시장철 꽃을 피웠다. 나는 아직 어떤 애호가네 집에서건 화원에서건 심지어는 바이올렛 전시회에 서조차 그렇게 화려하게 다발로 핀 꽃을 본적이 없다. 신접살림 난 친구들이 창가에 놓고 한두 분(盆) 기르는 그 꽃은 대개 가련하다 못해 비실비실했지만 시어머니가 기르는 것은 전혀 딴 종류처럼 사치스럽고 극성맞았다. 가장자리에 프릴까지 달고, 철쭉꽃만한 크기로 무리져 피어난 진분홍 바이올렛 같은 건 요괴롭다 못해 독기까지 느껴졌다. (『소묘』, p.409)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간직한 “바이올렛”은 작고 귀여운 관상용 꽃으

로 주로 실내에서 재배된다. ‘시어머니’가 재배하는 “휴면기”도 없이 “사시장철” 꽃을 피워대는 바이올렛은 마치 주인의 넘치는 생명력을 대변하는 듯하다. 그러나 ‘나’가 느끼는 시어머니표 바이올렛은 “사치스럽고 극성” 맞으며, “요괴롭다” 못해 “독기”까지 느끼게 한다. 시어머니는 손님들이 탄성을 지르며 재배 비결을 물어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랑을 듬뿍”이라고 우쭐거리며 답한다. 그러나 실상은 꽃시렁 밑에 달린 서랍에 온갖 “비료와 약품” “성장 촉진제” 등을 넣어두고 적절히 투여한 결과이다.

사랑 이외의 비결을 한 번도 입 밖에 낸 일이 없기 때문일까? 시어머니가 투약하는 모습은 남의 눈을 꺼리듯 비밀스럽고도 잔혹해 보였다. 나는 무심히 옆보다가도 또 독을 치는군, 하면서 전율한 적이 있었다. 잠시의 나태나 휴면도 허용하지 않고 만개(滿開)의 지속만을 강요하는 약이 독약이 아니고 무엇이라. 나는 시어머니의 사랑의 효험은 믿지 않았지만 독의 효과는 믿었다. (『소묘』, p.412)

꽃에게 “휴면기”도 주지 않은 채 독이 되는 비료를 투약하여 “만개의 지속”만을 강요하는 시어머니. 며느리는 이런 시어머니를 강박증에 빠진 “잔혹”한 노파로 인식한다. 이처럼 타인의 욕망을 우선해 이타적 삶을 산 두 여성 노인은 결과적으로 ‘피로감’에 절고, ‘잔혹’한 노파의 모습으로 화해있다.

3. 자아의 조작과 분열

3.1 독심술의 말로

철이 들 무렵부터 말수가 적어진 ‘여자’는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삶에 익숙해져간다. 그 결과, 타인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이 생겨버린 노파는, 별 수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며 매사에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런 예기치 않은 독심술 능력으로 인해 자신의 삶은 극도의 피로감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는 행복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반추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는 거울을 통해 문득 몰라보게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한다.

여자는 어느 날 아침 거울로 여러 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얼굴은

노파처럼 깊은 주름투성이로 고양이처럼 들성들성 누런 이빨이 추해보였다. 머리는 하얀 서리가 내려 몸 구석구석에서 소리를 내며 서릿발이 돌아나는 것처럼 차가운 아픔을 느꼈다. (『노파의 미소』, p.57)

‘여자’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인데다 “누런 이빨”, 희게 변한 머리카락은 마치 “노파”와도 같이 흉하게 변해있는 자신과 대면한다. 이뿐이 아니다. 몸은 이곳저곳에서 아픔을 호소하기 시작한다. ‘여자’는 결국 과도한 비만이 원인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이른 아침 “경직된 개구리”의 모습으로 남편에게 발견된다. 급기야 병원에 입원한 ‘여자’의 병실에는 남편과 아들, 딸이 문병을 와있다.

그러나 이틀 밤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급변하는 것도 그렇다고 호전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의식이 점점 혼탁해져 주위사람들을 인식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분은 비만인데도 매우 튼튼한 심장을 가져서 어찌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는데요.” 라며, 같은 증상의 어떤 뇌혈전증 환자는 의식불명인 채로 2년간이나 링거를 꽂고 살았다는 말을 하자, 세 명의 가족은 병자를 앞에 두고 말을 잃었다. (『노파의 미소』, p.57)

환자의 투병기간이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소견에 세 사람은 입을 다문 채 각자의 입장을 되돌아보기에 여념이 없다. 딸은,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온 어린 딸이 자신이 없는 사이에 병이나 나면 어찌나하고 불안해한다. 반면, 남편은 간병을 해야 할 딸이 혹시나 집에 간다고 할까봐 안절부절 못해한다. 딸은 아버지의 간청에, 주부가 집을 오래 비울 수 없다고 하면서도 마지못해 병실에 남아준다. ‘여자’는 자신의 병이 의외로 오래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를 생각한다.

딸은 잔뜩 겁을 먹은 채로 간호사를 도왔다. 환자는 땀과 배설물로 더러워진 잠옷을 벗기면서 뒤집혔을 때 눈을 부릅뜨고 바로 정면에서 자신의 몸을 잡고 있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순간 광채가 되살아난 눈으로 얇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아주 잠깐 불꽃의 심지와도 같은 화려하지만 외로운 광채였다. 이윽고 불꽃이 꺼지더니 병자의 눈에서 광채가 스러지고, 동시에 입안에 고여 있던 타액을 흘려보내 인후를 움찔 경련시키자, 눈동자가 움직임을 멈추고 몸이 경직되었다. (『노파의 미소』, p.58)

“땀과 배설물로 더러워진” 환자의 몸을 씻기기 위해 옷을 벗기는 간호사를 “잔뜩 겁을 먹은 채” 둥고 있는 딸의 모습이 노파의 시선에 포착된다. “민폐를

끼치려면 사라져”주라는 딸의 본심을 읽은 여자는 알겠다는 듯 “얽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딸과 최후의 시선”을 주고받은 후 인후로 타액을 흘려보내 스스로 숨통을 조이고 만다.

어떤 유혹에도 지지 않고 절도 있는 생활을 해서 100세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강건하게 살든지, 아니면 80세라도 자살할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마지막까지 누리다 가든지, 일 것이다. - 여자는 자신이 낳고 기른 딸에게 만족했다. (『노파의 미소』, p.59)

‘여자’는 딸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노년을 보내다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읽어내고는 안심하며 자신의 생을 “자살”로 마감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자신의 선택에 만족스러워한다. 아울러 딸도 자신이 교육해 온 것처럼 타인의 욕망을 우선시한 삶을 선택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둔다.

3.2 정보 강박증

한편, 고사목과 바이올렛을 통해 어머니로서의 희생과 사랑을 역설하는, 모성애를 지상제일의 가치로 아는 『소묘』의 ‘시어머니’의 또 다른 관심사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다량의 ‘정보’수집이다.

그것보다 훨씬 생생한 현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방안에 충만하는 정보였다. 증권시세, 사채시장 정보, 부동산 정보, 누구라면 다 알만한 댁 자녀의 결혼예물, 예단소식, 그리고 며느리 다루는 법 등의 정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방안에 가득 충만한 걸 나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분의 정보욕은 한이 없었다. 걸신들린 것처럼 탐해도 탐해도 충족을 모르고, 늘 아쉬워했다. 드물게 정보에 접할 수 없는 날은 불안해서 안절부절을 못했고, 그 좋은 살집이 다 초췌해졌다. (『소묘』, p.413)

방안에 가득찬 시어머니의 정보는 대략 ‘경제에 관한 정보’, ‘외부인들과의 교제에 필요한 정보’, ‘가정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정보’등 다양하다. 시어머니의 정보욕은 “걸신들린 것”같고 정보를 손에 넣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몸이 “초췌해”질 정도이다. 이처럼 충족을 모르는 시어머니의 정보욕은 가히 강박증적이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에게 정보란 어떤 의미일까?

그분에게 있어서 정보는 정신의 공기 같은 것인지도 몰랐다. 그래 그런지 그분의 정보에 대한 탐욕은 좀 도가 지나쳤다. 예의도 염치도 없었다. 이를테면 어찌다 나한테 오는 전화도 엿들었다. 별채의 내방으로 연결해주고 나서도 수화기를 계속 귀에 대고 있는 그분의 긴장한 표정을 나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뻔히 바라볼 수가 있었다. (『소묘』, p.413)

정보는 즉 사람들이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행동할 때 필요한 각종의 매체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다. 따라서 시어머니에게 정보는 타인이나 가족의 행동을 억측하거나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본인에게는 “정신의 공기”와도 같은 지식이다. 따라서 다량의 정보를 통해 얻은 무한한 지식은, 세상의 변화를 살피거나 가정에서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탐욕”의 수준으로 “예의”나 “염치”도 없는 도를 넘어선 자아 분열적 행동이다. 심지어는 며느리의 전화도청까지 자행하며 정서적 폭력도 불사한다. 이는 곧 강박증을 넘어선 광기 수준이다.

그렇다면 『소묘』의 ‘시어머니’의 정보 강박증은 어떻게 형성되어진 것일까? 전업주부인 그녀는 현역시절에는 꽤나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주인(남편)의 내조자로서 살아 왔다. 그러나 정년퇴직한 지금의 주인은 죽은 사람과 동일하다.

손님이 온종일 있을 때는 그분도 온종일 이층에서 꿈쩍도 안했다. (『소묘』, p.413)

식탁에서 꼭 필요한 말은 시어머니가 대신했다. (『소묘』, p.420)

집의 뿌리가 다 들썩들썩할 것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가 집어삼킨 그분의 주정은 성대를 제거당한 맹수의 울부짖음보다도 더 비참하고 헛돼 보였다. (『소묘』, p.422)

나는 그분의 말을 한마디도 되돌려주지 않고 번번이 집어삼키기만 했을 시어머니에게 격렬한 적의를 느꼈다. (『소묘』, p.422)

시어머니는 대외적 체면을 위해서라며 이미 죽은 남편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에게 격조 높은 옷차림과 행동을 강요한다. 또한 “남편 잘되고 못하고는 계집 하기에 달렸다.”(p.425)라는 가치관을 볼모로 남편의 모든 사생활을 제어한다. 퇴임 후 주로 집에서 지내는 시아버지는 손님이 방문했을 때는 퇴물

취급을 받으며 이층으로 격리 수용되고, 알코올에 의존해 내는 소리도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선곡한 오케스트라에 묻히고 마는, 그는 마치 “성대를 제거당한 맹수”처럼 “비참”한 주인이다.

정신분석학자 라캉은 강박증을 <주인-노예 변증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강박증 환자(의 위치)에 있어서 선물의 질서에 속하는 모든 것은 나르시시즘적 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는 이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가 출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즘의 변증법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 비워야하지 않겠는가? ...강박증 환자의 근본적인 역사는 이렇다. 그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주인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 주인 속으로 전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그가 무엇을 포로이며 노예인지 그에게 깨닫게 함으로써, 즉 그가 주인의 노예임을 그에게 깨닫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로 하여금 그의 담화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그가 미리 그것으로부터 항상 좌절되었는지를 그에게 깨닫게 할 수 있다.”¹³⁾

라캉에 따르면 강박증자는 흔히들 생각하듯이 주인의 위치가 아니라 노예의 위치를 차지한다. 상징적 거세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대타자의 포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강박증자는 대타자의 요구 그리고 이와 결합되어 있는 향유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주체이며, 그러한 한에서 대타자의 자리를 빈곳으로 놓아두기를 원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모순적 위치에서 고통 받고 있지만 바로 여기에 강박증자의 윤리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강박증자는 자신의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라캉이 말하듯이 강박증자는 자신의 변증법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그가 무엇을 포로이며 노예인지 그에게 깨닫게 함으로써, 즉 그가 주인의 노예임을 그에게 깨닫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로 하여금 그의 담화를 포기하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그의 변증법적 엄격함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그가 미리 모든 것으로부터 항상 좌절되었는지를 그에게 깨닫게 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¹⁴⁾

정보 수집 강박증을 보이는 ‘시어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녀 역시 라캉의 권유대로 남편을 내조하는 이타주의적 삶에

13) 홍준기(2007)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과 라캉 : 강박증 임상」,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VOL9. p.134. 밑줄 필자.

14) 홍준기(2007) 앞의 논문. pp.141~142.

서 얻어진 강박증 담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박증자의 변증법을 끝까지 실천하여, 즉 분석치료를 통하여 상상적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작중에는 시어머니의 정신적 일탈을 날카로운 비판력으로 지적하는 며느리의 시선이 재배치된다.

4. 생명릴레이로서의 광기

그렇다면 『노파의 미소』와 『소묘』, 두 작품에서 노파가 보여준 타자의 욕망을 앞세운 삶의 방식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먼저 『노파의 미소』의 ‘여자’는, 자신의 욕망보다 타자의 욕망을 우선한 삶으로, 상대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고 기쁨을 준다. 이처럼 침묵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의도에 맞추는 자세는 일견 봉건시대의 인내하는 여성상을 상상하게 한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친절과 배려심이 반드시 비난받을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그녀는 부여된 어떤 상황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남자의 모습에도 만족하고 자신과 사별한 남편의 행복한 제2의 인생의 출발을 축하했다. (『노파의 미소』, p.59)

노파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남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여자’는 죽어가면서도 남편의 재혼을 상상하며 축하하는 아량까지 보인다. 이러한 삶은 지금껏 페미니즘이 이의를 제기해 온 여성들의 이타적 삶 비평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 하였다.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이지만 인간의 사유가 드러내는 것은 처음에는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이렇듯 주체로 하여금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사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대상이며, 대상에 의해 촉발된 이러한 “인식 행위”를 욕구(욕망)라 부른다.¹⁵⁾ 결국 ‘여자’가 보여준 타자의 욕망을 우선한 인생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충실하게 살아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반면 딸과 아들에 대한 ‘여자’의 자세는 어떻게 평가될까? 어머니가 쓰러져

15) 홍준기(2007) 앞의 논문. p.118.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딸은 자신의 어린 딸을 걱정했었다. 반면 아들은 어땠을까?

“어머니 저에게는 끊임없이 뻘뻘 울어대는 새끼들이 있어요. 어떻게 제가 그들에게 먹이를 날라다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중략) 만일 제가 그 녀석들에게 먹이 나르는 일을 멈추고 어머니 곁에 찰싹 달라붙어있다면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녀석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야말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피를 조금이라도 후세까지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노파의 미소』, p.59)

아들 역시 자신의 소임은 어머니의 병수발이 아니라 자신의 2세를 돌보는 일이라 호소한다. 이런 아들의 부정애를 이타적 삶으로 ‘여자’는 수용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본다.

산에 살면서 사람을 잡아먹는 노파가 되는 것과, 노파의 마음을 갖고 인가에서 사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행복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쪽이든 같았다고 생각한다. 산에 살면 노파라 불리고 인가에서 살면 둔갑한 여우라 불리든지 건강하게 천수를 누린 평범한 여자라 불리든지에 차이지만 결국 내용은 같은 것이다. (『노파의 미소』, p.60)

‘여자’는 이른바 독심술을 지니고 민가에 내려와 일생을 마감한 둔갑한 여우였다. 산 속에서 살았으면 노파로, 민가에서 살았으면 둔갑한 여우로, 호칭의 차이는 있겠지만, 독심술을 사용한 삶의 내용은 같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산속의 노파는 독심술을 이용해 사람을 잡아먹지만, 민가의 노파는 독심술이 있기에 타인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이타적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여자’는 독심술로 자아가 조작되고 피로감이 누적되어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에, 산속 노파의 생활을 동경해 왔었다. 그러나 임종을 맞아 삶의 마지막 순간에 봉착했을 때 ‘여자’는 타인의 욕망을 우선해 살길 잘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가정교육에 의해 딸에게도 전수되었음을 확인한 후 만족스런 미소를 지으며, 이타적 삶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렇듯 작가 오바 미나코가 페미니즘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갖게 된 것은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듯하다. 씨는 “어머니가 제삼자 앞에서는 철저히 남편을 추켜세우면서도 가정 내에서는 분방하다 할 정도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집안 여자들의 내력이라는 이미지와도 겹치면서, 남녀 관계는 어딘가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¹⁶⁾고 밝힌바 있다. 또한

씨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이모와 재혼한 아버지를 보며, 자신들의 결혼 경위를 자식들 앞에서 달콤한 어조로 말하는, 부모이기 이전에 부부이자 한 쌍의 남녀였다고 언급하며, “한 쌍의 남자와 여자는 인간의 원형(原型)이다.”¹⁷⁾라고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노파의 미소』의 ‘여자’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타적 삶을 전개해 온 『소묘』의 시어머니는 어떨까? 그녀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강매하고, 정보를 탐하여 얻은 지식으로 주변인들을 억압해 마치 작은 성의 군주와도 같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곳곳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이는 며느리의 시점에 의해 포착된다. 먼저 아들의 경우이다.

그러나 그에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자신의 의지라는 게 없었다. 학벌이 좋고, 대학원까지 다니니까 아는 것은 많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소묘』, p.426)

어머니가 뒷바라지를 잘해주니까 공부를 잘했고, 어머니가 원하니까 법대를 갔고, 어머니가 법대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아니까 조금도 마음에 없는 공부를 그러저럭 할 수가 있었고, 어머니가 고시 불기를 소원하니까 삼년 간 고시 공부 하는 척은 할 수 있었지만 그때부터 이미 스스로의 의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단계였다. (『소묘』, p.427)

아들은 어머니가 원하니까, 법대에 가고, 고시공부도 했으며 대학원도 다닌다. 결혼 해 가정까지 꾸렸지만, 변함없이 어머니의 의지에 의해 자신의 진심을 감추고 “척” 하며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자아조작자이다. 다음은 며느리이다.

이렇게 나의 별채는 늘 닫힌 세계였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거실엔 늘 살아 있는 정보가 충만해 있다면 나의 방엔 돌파구 없는 정보가 고여서 썩어가고 있었다. (『소묘』, p.415)

손님들 앞에서 하는, 며느리한테 훌쩍 반한 시어머니의 연기는 일품이었다. 내가 그분의 넘치는 자애로움을 연기로 밖에 여길 수 없는 건 손님들이 가고 나서 돌변하는 그분의 태도 때문이었다. (『소묘』, p.416)

16) 沼澤和子(1993) 『女性文學、短編』, おうふう, p.62

17) 沼澤和子(1993) 전계체서, p.62 재인용.

시아머니와의 소통이 거부된 며느리의 공간의 “정보”는 지금은 죽은 정보로 무가치하다. 외부와 내부를 이분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며느리에게는 “연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러한 시어머니의 자기분열적 성격이 문제시된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의 독재로 도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며느리는 어떻게 풀어 나갈까?

시아버지의 모습과 표정과 몸짓 속엔 지울 수 없이 극명하게 남편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아무리 물려주어도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핏줄의 특징을 통해 나는 남편의 모습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나의 아이의 모습까지를 내다보고 있었다. (중략) 안 돼. 나는 격렬하게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시아버지가 지금대로 살아도 안 되고 내가 그 핏줄의 특징을 잇고 퍼뜨리는 일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중략) 나는 마치 혁명을 꿈꾸듯이 비밀스러운 정열로 시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소묘』, p.424)

며느리의 위기의식은 자신이 낳게 될 2세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에서 재현되는 피동적이고 의지박약한 핏줄의 특징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그동안의 “금지된 의문”을 “혁명”적으로 풀고자 한다. 그런 각오를 다진 며느리는 급기야 남편과의 소통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그는 깊이 열중해 있었다. 그가 무엇에 열중해 있는 걸 보긴 처음이었다. 푸르스름한 불빛 속에 드러난 그의 옆얼굴은 흡사 시퍼런 날을 세운 한 자루 칼날처럼 섬뜩하고 예리해 보였다. 그리고 그의 왼손은 단호하고 그의 오른손은 눈부셨다. (『소묘』, p.429)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싱싱한 욕망을 느꼈다. (『소묘』, p.430)

나는 그의 상처를 정성을 다해 애무하고 그의 피를 빨았다. (중략) 나는 그와 화합하면서 기적을 믿었다. (『소묘』, p.431)

자신의 의지로 게임에 열중해 있는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예리함”과 “싱싱한 욕망”을 느낀 ‘나’는 그의 “상처를 애무”하며 어머니의 빗나간 사랑으로 인해 생긴 생채기를 치료하기 시작한다. 2세를 염두에 둔 남편과의 육체적 화합은 진정한 소통을 통해 가정을 일구어 가겠다는 두 사람의 정신적 화합이 만

들어낸 장면이다. 그날 밤 며느리는 미래에 대한 “기적”을 꿈꾸게 된다. 결국 남녀가 공존 가능한 바람직한 가정 만들기는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의 대로 그 책임이 전가된다.

이처럼 이타적 삶을 산 두 작품 속의 노파들의 삶의 방식은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다. 『노파의 미소』의 노파는 자신의 독심술을 이용, 철저히 타자 욕망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 낸다. 또한 그런 여자로서의 자신의 삶이 타당했다고 결론내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은 있는 그대로 딸에게 전수된다. 한편 『소묘』의 시어머니는 완벽에 가까운 이타적 삶을 살아 낸 결과, 강박증에 사로잡힌 노년을 맞는다. 이런 시어머니의 삶 탓에 명들어가고 있는 가족들을 보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비판의 날을 세운다. 이러한 에너지는 며느리로 하여금 2세 출산에 대한 결심을 하게하여, 생명릴레이로서의 국면을 더한다.

5. 나오며

남성중심주의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참 존재와 강요된 존재 사이에서의 자아조작과 분열을 반복하는, 독심술과 강박증의 광기로 살아 낸 일생. 만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광기 증만한 『노파의 미소』와 『소묘』의 노파들은 그녀들만의 결론에 이른다. 일본의 노파는, 독심술로 타자의 욕망을 캐치하고 이에 맞추어 타자를 우선한 삶을 영위한 결과 자살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딸을 통해 이타적 삶의 방식이 지속되기를 간망한다. 한편 한국의 노파는, 퇴임 후 일선에서 물러난 남편의 위업을 이어받아, 가정과 대내외적으로 소통하고자 정보에 광분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이 예기치 않게 가족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자, 며느리에 의해 과감히 수정된다. 한일 두 노파의 결에는 여성들의 이타적 삶의 방식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차세대주자로 딸과 며느리가 준비되어있다. 두 노파는, 강요된 삶에서 채득된 광기였지만,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는 신념아래 이를 도리어 지혜로 승화시켜 미래 세대인 손자들을 위한, 또한 손자 생산을 추구하는 생명릴레이의 광기로 환원시킨다.

【참고문헌】

- 김수현(2006) 「소설 속 여성의 狂氣와 치유의 서사 - 오정희와 최윤 소설을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 임옥희 외(1994)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p.70
- 우미영(2000) 「여성의 광기와 무의식의 욕망 - 백신애론」 『여성문학연구』 4권, 한국여성문학학회. p.353
- 명혜영(2011) 「주부의 연극적 자아와 갈등 - 『세 마리의 게(三匹の蟹)』(大庭みな子)와 『어떤 나들이』(박완서)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53집. pp.261~284.
- 서영채(1999) 「사람다운 삶에 대한 갈망」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 해설, (주)문학동네. p.445
- 홍준기(2007) 「해겔의 주인-노예 변증법과 라깡 : 강박증 임상」,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VOL9. p.134
- 大庭みな子·水田宗子(1994) 『<山姥>のいる風景』, 田畑書店. p.45
- 水田宗子(1991) 『フェミニズムの彼方』, 講談社. p.100
- 沼澤和子(1993) 『女性文學、短編』, おうふう. p.62

要 旨

男性中心主義の家父長制社会において、韓国と日本の二人の老婆は、真の自分と強要された自分との間で、自我操作と分裂を繰り返す、読心術と強迫症という狂気をもってしまった人生。晩年を迎えた時点で彼女たちは各自自分なりの結論に至る。日本の山姥は、読心術を発揮して他者の欲望をキャッチしそれに合わせた、他者を優先する利他的生を営んだ。結果、自殺という選択をせざるを得なくなりながらも、娘を通じて利他的生き方が持続することを壟望する。一方、韓国の老婆は、退職後一線で退いた夫の偉業を受け継いで、社会との疏通のために情報に狂奔するが、こうした生き方が予期せぬことを引き起こす。つまり、家族を抑圧する結果を生んでしまう。が、それは嫁によって敢然と修正される。韓国と日本の二人の老婆のそばには、女性たちの利他的生き方のバトンを受け継ぐために、次世代走者として娘と嫁が用意されている。二人の老婆は、強要された人生の中で体得された狂気だったが、“人間の最大の幸せは他人を幸せにする事だ。”という信念の下で、これを返って知恵に昇華させ、孫たちのための生命継走の狂気に還元させてみせる。

キーワード：山姥、狂気、利己、利他、生命、強迫、読心術

투 고 : 2013. 5. 31
1차 심사 : 2013. 6. 15
2차 심사 : 2013. 7. 6